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미디어 교육·체험 현장 방문

- “인공지능(AI)시대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에 장애인·노인 등 사각지대 없어야” -
- 특히, “딥페이크 범죄 예방교육 최우선 실시” 주문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4년 9월 30일(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최병연, 서울 성북구 소재)를 방문하여 미디어 교육·체험서비스 현황을 점검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미디어교육 및 센터시설에 대해 관계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센터에 있는 녹음·편집실 등 콘텐츠 제작 현장을 참관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05년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대구 등 전국에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체험, 방송제작 시설·장비 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개관하여 미디어교육·체험 지원, 미디어 행사 개최, 교육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 등 지역사회 미디어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개인이 미디어를 제작·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노인·다문화 가정 등의 미디어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국민이 미디어를 이용·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 교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살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은 10대 청소년들까지 그 피해가 심각한 만큼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방통위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용자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센터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미정 (02-2110-1450)
		담당자	사무관	오형권 (02-2110-129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센터	사 진	내 용	센터	사 진	내 용
부산 (‘05년~)		부산시 해운대구 연면적 5,021㎡, 지하1~지상4층	울산 (‘16년~)		울산시 북구 연면적 2,316㎡, 지하1~지상4층
광주 (‘07년~)		광주시 서구 연면적 6,075㎡, 지하1~지상4층	경기 (‘19년~)		경기도 남양주시 연면적 4,222㎡, 지하1~지상3층
강원 (‘14년~)		강원도 춘천시 연면적 2,328㎡, 지하1~지상2층	충북 (‘20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연면적 2,717㎡, 지상5층
대전 (‘14년~)		대전시 유성구 연면적 2,926㎡, 지상1, 4층	세종 (‘20년~)		세종시 어진동 연면적 2,467㎡, 지상1,3층
인천 (‘14년~)		인천시 연수구 연면적 2,584㎡, 지상3~4층	경남 (‘23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연면적 4,583㎡, 지하1~지상6층
서울 (‘15년~)		서울시 성북구 연면적 2,925㎡, 지상1~3층 일부	대구 (‘23년~)		대구시 수성구 연면적 3,037㎡, 지하1층, 지상1층

※ 경북, 전북, 전남(‘26년 개관목표), 충남(‘27년 개관목표)는 센터 구축 중

□ 이용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계
‘21	116	94	86	97	87	124	99	93	73	37	906
‘22	126	104	90	104	92	128	108	104	78	39	973
‘23	131	104	91	114	92	135	114	106	81	58	1,026

□ 주요 기능

- (미디어 교육) 미디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
- (콘텐츠 제작지원) 시청자 방송 참여를 위한 콘텐츠 제작활동 지원
- (이용자 권익증진) 방송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이용자 권익증진
- (장비대여·시설대관) 방송제작 촬영장비 및 시설 무료 대여